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탑화, 개금불사, 천불감상,
 내무장엄불사, 불교극공연 등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하이원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IMF시대...교계 무료급식소 50여곳 운영

'밥보시'로 情 나누는 사회



장충단공원에서 소원하던 노인들이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불교신학연구원원이 제공하는 무료점심을 들고 있다.

장충단공원 입구에서 노인들이 불교신학연구원원이 제공하는 식권과 떡·김밥을 받고 있다.

"결식아닌 부처님의 공양 받는 것"
노인들뿐 아니라 중년층도 줄 서
이용자 느는데 보조금등 예산 동결

3월23일 오후 12시10분 서울 남산 자락의 장충단공원 입구, 1백여 명의 노인들이 줄지어 서있다. 그중엔 40~50대의 중년층도 적지 않다. 한 낮 텅 빈 공원 운동장 주변엔 노인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을 지어 선 까닭은 뭘까.

다름아닌 1시에 시작되는 불교신학연구원(원장 김현준)의 무료점심 공양을 기다리는 행렬. 이미 1시간 전부터 하나 둘씩 모여 식권 또는 떡·김밥과 차를 받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다. 자칫 늦게 줄을 서면 김밥도 받아 들기 힘들다.

장충단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16일부터. 불교신학연구원원이 동국대 생활협동조합의 도움으로 무료급식을 시작 한 날이다. 이젠는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 전철·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장충교회에서 급식하는 날(목요일, 급식인원 3백명)을 빼고는 불교신학연구원원이 월~금요일 오후 1시에 배식을 하고 있다. 아직은 자금이 부족해 50명에게만 식권을 배부하고 50명에게는 떡·김밥 등을 나눠준다. 호응이 좋아 조만간 2백명으로 대상인원을 늘릴 예정.

김현준원장은 "지난 몇년간 월간(법 공양)을 발행하며 '법 보시(法布施)'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밥 보시'가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무료급식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3월25일 오전 11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된다. 원각사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 국수공양을 실시한 것. 국수를 세번이나 삶아 나눠준 인원은 모두 7백여명. 주지 보리스님은 국수공양 내내 목탁을 치며 '천수경'(경허스님 참선곡)을 독송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한 노인이 "얻어먹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보리스님은 "이 점심공양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증생에게 베푸는 공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각사는 매주 수·일요일 원각사지 마당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IMF시대 이후 실직사태로 가정이 경제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줄을 서는 사람이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건강한 중년 남성들도 서 있다. 심지어는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차를 기다리는 노인들도 있다.

95년부터 등산객을 위해 무료 점심공양을 실시해 온 관악산 연주암의 경우 몇달간 내방객이 폭증하자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천원의 보시금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등산객이 두·세배로 늘어 경일 5백여명, 휴일 1천~2천명이 먹을 부식비와 연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 주지 자승스님은 "보시금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관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환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료급식현황에 따르면 경로당(이중 노인중 34%가 결식), 무료급식소를 포함한 전국의 급식소는 225개소, 급식인원은 2만2천3백여명에 달한다. 이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61개소이며 7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사회복지관이

103개소, 봉사단체가 48개소, 개인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불교계는 사회복지관 경로식당과 사설 무료급식소 사설 등을 포함 5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상계동과 미아동동의 '자비의 집', 연꽃마을의 송파·마포·인천동 구경로식당,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관음의 집' 등 무료급식소와 지역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교계 무료 급식소의 경우 예년보다 30~40% 증가한 노인들이 무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무료급식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자체 보조금등 예산은 동결된 상태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복지관들은 급식비의 60~70%(연 1천~2천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조받고 있으나, 지방 복지관 및 사설 무료급식소는 미미한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연금 항목의 정부예산이 최근 추경에서 5백59억원이나 삭감되는 등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저소득 계층의 생활고가 극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간극예산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종교·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계 무료급식소 관계자들은 "사회는 각종 불사를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에게 따뜻한 점심공양 한 끼라도 배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김재경 사진=고영배 기지

◇교계 무료급식단체 현황 (무선·시할급식소 제외)

| 단체 및 시설 | 점심공양 횟수 | 급식인원 | 연락처 |
|-------------|-------------|------|----------------|
| 경북련 미아자비이집 | 월~금요일 | 130명 | (02)945-4200 |
| 경북련 상계자비이집 | 월~금요일 | 130명 | (02)936-8533 |
| 연꽃마을 송파경로식당 | 월~토요일 | 130명 | (02)203-8677 |
| 연꽃마을 마포경로식당 | 월~금요일 | 250명 | (02)365-3678 |
| 연꽃마을 인천경로식당 | 월~금요일 | 300명 | (02)765-3677 |
| 연꽃마을 수인경로식당 | 월~금요일 | 160명 | (03)145-3676 |
| 원각사 | 수·일요일 | 600명 | (02)741-8822 |
| 대구불교사회복지회 | 토요일 | 600명 | (053)476-6631 |
| 불교사회교육원 | 화·목요일 | 120명 | (056)743-1106 |
| 자비공양의집 | 월~금요일 | 160명 | (051)85-2181 |
| 부산 진어암 | 토요일 | 210명 | (051)337-1080 |
| 인천 과안이집 | 월~금요일 | 80명 | (032)865-0108 |
| 평택 수암정사 | 월요일 | 300명 | (033)353-8077 |
| 김동 관음의집 | 월~금요일 | 80명 | (02)483-5061 |
| 불교신학연구원 | 월·화·수·금 | 100명 | (02)582-6612 |
| 대구 자비이집 | 월~금요일 | 200명 | (053)253-3248 |
| 조계사 청년회 | 2·4·7번째 일요일 | 500명 | (02)735-3724 |
| 대각사 청년회 | 넷째 일요일 | 300명 | (051)245-8781 |
| 강원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31)7653-6376 |
| 개광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70명 | (051)893-5034 |
| 공암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51)363-2063 |
| 구도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30명 | (02)852-0525 |
| 관암사회복지관 | 월·목·토요일 | 70명 | (0416)856-6110 |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토요일 | 90명 | (02)985-0161 |
| 남원사회복지관 | 월·수·금요일 | 75명 | (0582)32-5677 |
| 무송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51)285-0471 |
| 매곡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30명 | (034)393-5677 |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월~토요일 | 150명 | (037)762-8131 |
| 모전사회복지관 | 월·수·금요일 | 90명 | (0581)555-0108 |
| 문운대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70명 | (051)264-9033 |
|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652)652-4242 |
| 백전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50명 | (053)811-1347 |
| 범동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42)633-1141 |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80명 | (02)817-8052 |
| 상진종합사회복지관 | 화요일 | 30명 | (02)421-6077 |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20명 | (039)331-8761 |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 월~토요일 | 80명 | (052)941-8248 |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화요일 | 150명 | (02)282-1100 |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 월~토요일 | 80명 | (052)286-3853 |
| 자안사회복지관 | 월~금요일 | 100명 | (02)458-1664 |
| 종리종합사회복지관 | 월·수요일 | 150명 | (055)131-8017 |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월·수요일 | 30명 | (02)806-1375 |
| 하인사회복지관 | 월~토요일 | 100명 | (0562)48-6165 |



"젊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요"

"활동력 있는 젊은 엄마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이 더욱 필요해요."

93년말 개설된 교계 최초의 무료급식소인 서울 미아동 '자비의 집' 최현수 자원봉사자인 엄광애보살(36), 초등학교 2·4학년 딸과 7살바기 유치원생 아들을 둔 젊은 엄마 엄보살은 "불교계도 교회처럼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좋다고 말했다.

2백여명의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40~50대 가장 주부. 엄보살은 젊은 나이에다가 직장생활(대안생명 생활상계사)까지 하는 보기도 못한 미시적으로 주위의 언니 봉사자들의 헌찬을 받으며 받고 있다. 한달에 2번 봉사가 있는 날이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자마자 무료급식소로 달려온다. 경력은 1년 이 채 되지 않았지만 노인들의 점심공양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는 모습이 이미 베테랑이다 되었다.

4년된 '자비의 집' 후원회원으로 있다가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말에 선뜻 나섰다. 집안 살림에 직장생활하러 사할(민목동 보현정사) 다나라 정신이 없지만, '관음보살' 정근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장 중요한 수월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은 아들이 실직한 노인들과 50대 중년남자들이 늘어 마음이 아파요. 평소 100여명인 인원이 140여명으로 늘어 반찬을 세가지에서 두가지로 줄여 미안할 따름이죠. 봉사자들의 도움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요."

엄보살은 헌정 부모님과 시어머니 같은 노인들이 언제나 즐겁게 점심공양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부처님오신날

2542 Buddha's Birthday

법요식 98.5.3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현수막 규격 | 가 격 |
|------------|---------|
| 90cm × 6m | 40,000원 |
| 90cm × 8m | 50,000원 |
| 90cm × 10m | 60,000원 |
| 90cm × 12m | 70,000원 |

※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봉축행사용품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제작 관례상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후문 옆)
 ☎(02)723-4306~7, FAX: (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집' 교패

크기: 5.5cm × 7cm
 보급가: 1개당 1,000원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봉축 어깨띠

▲ 고급공단으로 제작
 ▲ 색상·노랑색, 분홍색, 오렌지색, 흰색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차량용 스티카

● 크기: 10cm × 10cm
 ● 가격: 300원

봉축 리본

▲ 알바리본 ▲ 고급리본
 ● 색상이 다양합니다.
 (꽃분홍, 분홍, 노랑, 흰색)
 ● 권반용 3단 꽃리본도 있습니다.
 (1,000원)
 ● 타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5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